

人間 鄭 鎮 先生

韓 荃 淑

I

내가 愚軒 鄭 鎮 선생을 가까이에서 알게 된 것은 1970년 가을에 서울大 교양과정부에 부임해서 부터이다. 지방에 15년이나 있다가 올라온 나로서는 생소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빈틈 없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다. 그로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같은科室에서 지내면서 나는 鄭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類型이 있다. 鄭 선생은 그 중에서 그리 흔치 않은 한 유형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필요 이상의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거니와 또 실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반면에 남에게 필요 이상의 아무 것도 베풀려 들지 않거니와 실지로 베푸는 일도 없다. 그러니 꼭 필요한 일이 없이는 남을 만나지도 않는다. 쓸데 없이 남을 비방하지도 않지만 또 남에게 공연히 폐를 끼치는 일도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불필요한 가지(枝)가 있을 틈이 없다. 따라서 그 생활은 밖에 서 볼 때 지극히 단순하고 말쑥하다. 티 하나 없다. 나는 이런 鄭 선생이 좋다. 동료로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만난다든가 또는 일을 같이 처리한다든가 하는데 앞뒤를 재가며 여러가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조금도 없다. 도시 그 존재가 남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일 없이 사람을 찾아 다니지도 않아서 가만히 놔두면 그저 혼자서만 나날을 보낸다. 그래서 이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자기만의 무슨 牙城을 구축하여 그 속에서 安住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홀로 사는 그 생은 그저 바람 부는대로 나부끼거나 물 흐르는 대로 밀려가는 그런 무책임한 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부분은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처신하는 법이 달라지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다. 그 무엇에 영합할 줄도 모르고 어느 누구에게 아양 떨줄도 모른다. 오로지 내가 믿는 正道를 묵묵히 걸어갈 따름이다. 그 믿는 바를 세상에 공표하여 그 길이 옳음을 세인이나 동료들로부터 특별히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는 추호도 없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으면 그만인 것이다.

II

그러나 이런 경우 흔히 따르기 쉬운 獨斷을 우리는 鄭 선생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 자기

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언제나 준엄한 비판을 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옳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그 이상 없이 엄격하다. 요만치의 不義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매사에 진실만을 추구하는 노력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남으로부터 고집불통이라고 평받기가 일쑤다. 그러나 이것은 평소에 자신의 생활이 언제나 정당하고 진실하다는 信念에서 나오는 고집이다. 그렇지만 鄭선생은 이런 고집스러운 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코 고집불통은 아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면이 전혀 없다.

나는 鄭선생의 鄭선생 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는 한 편에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대쪽같은 엄격함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는 어린 아이들의 저 無垢함, 두메 산골의 농부들의 저 素朴함, 그리고 언제나 온 몸에서 넘쳐 흐르는 저 따스함이 있다. 이 두 면이 鄭선생에게서는 아름다운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 때에는 정말 無骨好人같이 보이기도 한다.

III

그렇지만 그는 어느 때나 그의 곧바른 자세를 흐트러 버리는 일이 없다. 이것은 鄭선생의 글씨에 잘 나타나 있다. 강의 노트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적어 놓는 메모 같은 데서도 鄭선생은 마치 印刷物같이 한 자 한 자 또박 또박 써나가고 있다. 그 글이 아무리 길어도 또 아무리 글 쓴 때가 달라도 그 筆體는 조금도 달라지는 일이 없다. 그러나 鄭선생에게는 落書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다.

국민학교 때 학교는 강 건너 산 넘어 10리도 더 떨어져 있었단다. 그 길이 하도 험하고 하도 멀어서 같은 동네 꼬마라기들은 곧잘 학교를 쉬곤 했는데 鄭선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 해 개근상을 탔다고 한다. 꼬마 적의 이 정성, 이 열성은 일생 계속된다. 자기만의 등지를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 같이 말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鄭선생은 이 등지에서의 생활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한시도 체적질을 멈추지 않는다.

문교부 후원으로 독일에 1년가 있을 때다. 남들 같이 도서관에 다니며 책이나 읽고 자료나 수집하고 그리고 여기 저기 관광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 이 주어진 1년을 鄭선생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독일에 도착한 처음 2개월 동안 일부러 괴테인스티투트의 과정을 밟아 회화를 익히고 나서 두 학기 동안 거기 대학의 강의와 세미나에 꼬박 참여하고 있다. 벌써 20년이나 대학에서 가르치던 鄭선생의 나이는 그때 52세였다.

이 鄭선생이 이제 華甲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직 誠實 하나만으로 살아온 그 일생이 이제 그 열매를 걷어들일 때가 된거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 3년 전부터 病苦가 선생을 괴롭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鄭선생의 저 성실함이 그 일편단심이 멀지 않아 이 병고를 꼭 극복하리라 믿는다. 부디 어서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에게 그 귀중한 열매를 나눠주시기도 하며 만수무강하기를 빈다.